

## 바이브컴퍼니, 3기 신도시에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한 '3차원 가상 체험 플랫폼' 구축

<2020-10-13> 바이브컴퍼니(대표 송성환, (구)다음소프트, 이하 바이브)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함께 3기 신도시, 과천지구, 안산 장상지구 등에 바이브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, 도시가 실제 준공된 아파트 단지나 주변 건물 등이 어떻게 보일지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'3차원 가상 체험 플랫폼'을 구축한다.

이렇게 되면 청약 희망자는 모델 하우스에서 단순 아파트 단지 모형을 보는 대신, 신도시 특정 아파트 단지의 동이나 층을 선택해 실제 조망이 어떨지 확인할 수 있으며, 베란다에서 인근 강이나 호수가 얼마나 보이는지, 다른 건물로 전망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지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체험해 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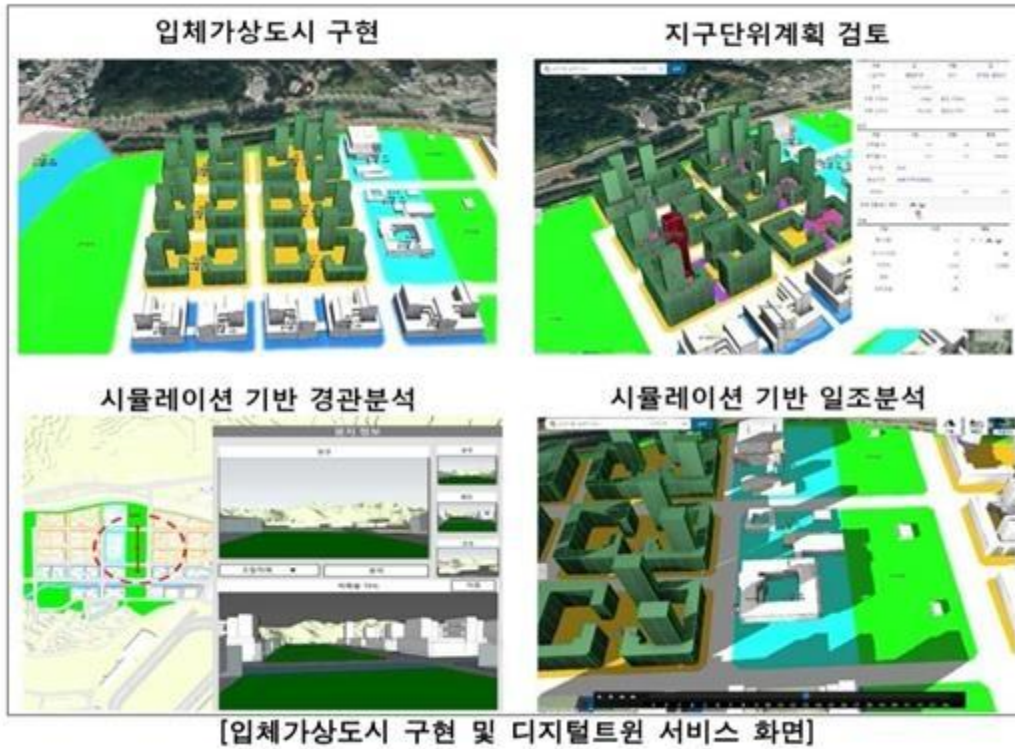
'디지털 트윈'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상현실 속에 그대로 재현하고,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로,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자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이다.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면 아파트 단지 조망 등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, 나아가 교통·환경·안전 등을 미리 예측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.

바이브의 경우 2018년부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 개발, 지하 공동구 디지털 트윈 연구, 안전 재난 디지털 트윈 구축 연구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대표 프로젝트로는 2019년 국가시범도시(세종, 부산) 디지털 트윈 마스터 플랜 및 시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주관하고, 가장 최근에는 광양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.

해당 사업을 맡고 있는 바이브 디앤에스 부문 이재용 부사장은 "디지털 트윈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접목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시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."라고 말했다.

한편 바이브는 10월 말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10월 12일~13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, 10월 19일~20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.

[사진자료]



내년 7월부터 사전 분양이 진행되는 '3기 신도시'부터 아파트 청약 전, 건물 구조나 단지 환경, 조망 등 디지털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실제 아파트 구조 및 거주 환경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

- ▣ 자료문의 : 바이브 조수진 과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070-4314-7211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IR큐더스 신지수 선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02) 6011-2000(#137)